

# ‘코리아둘레길’ 세계적 걷기여행 명소로 육성한다

**전남도, 5억 투입 민박시설·안내센터 구축**

**서해랑길·남파랑길 총 83개 코스 1,420km**

전남도는 서해랑길과 남파랑길 등 국토 외곽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을 전남만의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세계적 걷기여행 명소로 육성하기로 했다. ‘코리아둘레길’은 총 4,544km에 이르는 국내 최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해랑길, 동해의 해

파랑길, 비무장지대의 DMZ 평화누리길로 이뤄졌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국가사업이다. 남파랑길은 부산 오륙도부터 해남 땅끝전망대까지 총 1,470km 여행길이다. 이중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의 4개

코스 732.1km가 전남 구간으로, 지난 2020년 10월 개통해 운영 중이다.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서해랑길은 해남 땅끝마을부터 인천 강화까지 총 1,800km 여행길이다.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진도, 신안의 4개 코스, 687.8km가 전남 구간이다. 전남지역 코리아둘레길은 총 83개 코스 1,420km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코리아둘레길’을 관광과 지역문화를 연계한 핵심자원으로 꾸리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9개 시군

이 포함된 남파랑길의 안내체계 구축 및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유튜브 활용 홍보 콘텐츠 운영 등 둘레길 조성·관리에 적극 노력했다. 또한 8개 시군이 포함된 서해랑길은 관광객의 이용 편의와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관광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노선을 조정하고 안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올해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완성·개통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걷기여행을 편하게 즐기도록

‘코리아둘레길 쉼터 운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를 했다. 그 결과 전남도는 전국 15개소 중 순천, 해남, 영광, 완도, 4개소가 선정돼 5억2,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둘레길 노선과 인접한 농어촌 민박시설,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안내센터를 구축하고, 걷기 여행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 지원으로 친화적인 걷기 여행 환경을 조성한다. 코리아둘레길의 핵심 브랜드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시군과의 연계를 강화해 도내 둘레길 코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 체류형 관광 대표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청정, 힐링 관광 트렌드의 최적지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며 “해양·생태 등 전남만의 특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코리아둘레길을 세계적 걷기여행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광주시 정무·청년특보 정장우·박은철씨 내정**

광주시 정무 특별보좌관에 정장우 전 광주 광산구 열린민원실장(58), 청년특보에 박은철씨(43)가 내정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이들을 내정하고 신원조회 등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주께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5급 상당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기간은 1년이다. 정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산구을)의 전남대 사회학과 2년 후배로, 민 의원이 광산구청장을 지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대 열린민원실장을 지냈다. 박태영 전 전남도지사 시절 민원실장도 역임했다. 박씨는 2011년 ‘반운동권’ 성향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청년센터 아이카브 대표와 광주시 대전환특별위원회 그린 추진 단장을 맡고 있다. /오선우 기자



에너지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7일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착한 소비’ 공공배달앱 자리매김

**출시 6개월 21만5,600건 매출 52억9,000만원 기록**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지난해 7월 출시 후 6개월간 가맹점 6,600여 곳, 거래 21만 5,600여 건, 52억 9,000여 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성장세의 배경으로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시민들의 착한 소비문화 확

산에 적극적인 참여 ▲낮은 중개수수료(2%) ▲광주상생카드 및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결제 연동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구축 ▲적극적인 홍보 등이 꼽힌다. 그동안 광주시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즉시 할인,페이백, 마일리지 적립, 무료 배달, 프랜차이즈 제휴 할인, 상생카드 결제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공 ▲의식업중앙회, 상인회, 대학 등과 협업 강화, 소상공인 지원이 현장 홍보 등 가맹점 추가 입점 지원 ▲대학생, 맘,

직장인, 동호회 등 대상 온라인 홍보와 공동주택 및 언론 광고, 주문 챗봇지 등 오프라인 홍보 ▲현대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오택캐리어 등 지역 기업참여 상생 마케팅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바로 실적’ 사례(벤처마켓), 광주시민과 함께 선정한 올해의 BEST15 우수시책 등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올해도 지역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시민들의 착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소상공인 및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프로모션 등 고객 감사 이벤트, 가맹점주 배달료 지원, 소비자 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공공배달앱(위메프오)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덕분이다”며 “올해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전남도,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한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길윤현 기자

##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별세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사친)가 9일 오전 5시 28분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2세. 배 여사는 최근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전날 다시 쓰러진 끝에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배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9일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아들의 뒤를 이어 민주화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전국민족민주주의가족협의회(유가족협)에 참여해 민주화 시위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힘을 보탰다. 그는 1998년부터 유가족 협회장을 맡아 422일간 국회 앞 전략 농성을 벌여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다. 배 여사는 이러한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주장 모란장을 받았다. /최환준 기자



# 하 고

**김근중(전남매일 상무이사 겸 전남취재본부장) 모친 밀양박씨 정자께서 2022년 1월 9일(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 광주VIP장레타운 VIP 301호
  - 발인일시 : 2022년 1월 11일(화) 오전 9시
  - 장 지 :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선영하
- 2022년 1월 10일

아들	<b>김근중</b> (전남매일 상무이사 겸 전남취재본부장)	딸	<b>김마리아</b>
	<b>동식</b>	사위	<b>이광재</b>
	<b>동원</b>	손	<b>김기흥</b>
며느리	<b>정경숙</b>		
	<b>이혜선</b>		
	<b>송연화</b>		

※연락처 010-3601-206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 김근중(상무이사 겸 전남취재본부장) 모친 밀양박씨 정자께서 2022년 1월 9일(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전남매일 임직원일동**



전남매일 국민안전 캠페인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씌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